

나주읍성권 역사문화 복원 속도 낸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775억 투입 활력 넘치는 시가지로 영산포권도 189억 들여 청년 창작소 등 근대문화거리 활성화

나주시가 2018년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선정돼 읍성권복원에 탄력을 받게 됐다.

나주시는 2018년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문제점 정부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구 나주역 중심의 읍성권과 옛 영산포극장 중심의 영산동 일원이 최종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이번 선정으로 국비 243억원, 공공기관 483억원을 포함해 시비 238억원까지 모두 96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중심 시가지형인 나주 읍성권 B지역은 '현대화로 재조명한 역사문화 복원도시'라는 주제로 구 나주역과 시가지를 되살리기 위해 나주시와 LH, 한전, 콘텐츠진흥원, 실감미디어센터 등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활력 넘치는 시가지를 조성한다.

또 영산포권은 '근대유산과 더불어 상생

하는 영산포'라는 주제로 옛 영산포 극장과 흥어거리를 잇는 근대문화거리 영산동을 청년 창작소, 근대 일본인 가옥 거리, 흥어거리, 굴다리 켄러리, 미용거리와 기존 황포돛배를 비롯한 영산포 풍지지구와 조화를 이뤄 다시 찾는 영산포를 만들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15년에 '읍성권 도시재생사업'과 2017년 '도란도란 만들어가는 역전마을 도시재생 이야기사업' 등 총 4개 사업 선정으로 나주 읍성권 2개 지역 64만4016㎡와 영산포권 2개 지역 15만3193㎡에 총 1147억원이 투입하게 됐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2천년 유구한 역사를 이어온 나주 읍성권, 영산포권, 남평읍권 원도심 3개 지역은 우리 나주의 정체성이 녹아 있는 역사문화의 보고"라며 "도시재생을 위해 함께 노력하여 주민 주민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나주읍성의 동문인 동점문(東漸門). 성벽 안에서 올라다 본 누각 위로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다.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나주읍성권과 영산포권이 선정돼 활력 넘치는 시가지 조성에 탄력을 받게 됐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한편 나주시는 2015년, 2017년 사업추진과 2018년 이후 도시재생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이달 조직개편으로 도시재

생 전담부서인 '도시재생과'를 신설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kwangju.co.kr

오늘 나주서 전남 여성일자리박람회 개최

경력단절 및 청년층 여성의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2018 전남여성일자리 박람회가 6일 나주종합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에서 개최된다.

나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주관하고 전남도와 나주시가 후원하는 박람회는 경력단절, 중·장년층, 학생 등 모든 여성을 위

한 특화된 취업 행사다.

지난 2015년 이후 4년째 나주에서 개최되는 전남여성일자리 박람회는 총 222개 직·간접 기업업체(현장채용 업체 32개)가 행사에 참여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박람회장에는 구직 여성의 정보제공 및

직업 체험 공간인 현장채용관과 직업체험관, 창업지원관을 비롯해 이력서 클리닉, 면접해어스타일링&메이크업 컨설팅, 무료 증명사진 촬영 등을 할 수 있는 취업컨설팅관 등 56개 부스가 운영된다.

특히 2부 행사에는 밴드 축하공연을 비롯해 방송인 유인경 씨를 초청해 '내 안에 보물창고'를 주제로 시대가 원하는 당당한 업마, 똑똑한 업마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토크콘서트도 마련됐다.

나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경력단절 여성 168명이 새로운 직장을 갖게 되는 등 양성평등사회 구현에 기여하고 있다"며 "육아 등 일터를 떠났던 여성들이 박람회를 통해 사회의 문을 다시 두드리고 경제 활동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람회 문은 나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061-333-2060)로 하면 된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kwangju.co.kr

호남권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 박차

나주시, 물류센터·업체와 협약

나주시는 지난달 29일 시청 회의실에서 호남권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및 국내 친환경 이류식 제조업체 (주)청담은과 친환경농산물유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인규 나주시장과 정순열 물류센터장, 김영식 (주)청담은 대표 등 관계자 20명이 참석했다.

협약식에서 3개 기관은 '고품질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확보와 공급', '전남지역 친환경농산물 유통 및 가공식품 산업육성 활성화' 등을 위한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과 상생발전에 힘써하기로 했다.

업무협약으로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

터는 (주)청담은에 양파, 감자, 고구마, 배 등 4개 품목의 친환경농산물을 우선 공급하고 추후 버섯류, 과채류, 엽채류, 양채류 등 품목을 확대 공급할 방침이다.

정부의 제 2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2006-2010)에 따라 지난해 10월 전국에서 2번째로 건립된 호남권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는 저온저장고, 냉동창고, 집배송장, 선별포장장, 전처리실 등 호남권 친환경농산물의 효율적인 유통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특히 광역형 학교(공공)급식사업 추진, 산지 친환경농산물 원물 확보 및 대외마케팅 활동 등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하며 호남권 친환경 농산물 조달 및 공급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나주시청 회의실에서 호남권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및 국내 친환경 이류식 제조업체 (주)청담은과 친환경농산물유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강인규 나주시장은 "이번 협약이 우리 지역 친환경농산물의 안정된 생산 및 판로 확보를 통한 실질적인 농가소득으로 이어지는 촉매제가 되길 기대한다"며 "친환경

농산물의 주산지로서 우리 시는 센터와 업체와의 유기적 협력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kwangju.co.kr



지난 1일 어르신들이 빛가람동 우미리아파트 단지 내 텃밭프로그램을 위해 조성된 텃밭에 가을 배추를 심고 있다. <나주시 제공>

텃밭 가꾸며 건강한 노후 보내세요

나주시, 실버세대 텃밭 프로그램 개강

나주시는 노인 장년층의 건강한 여가 활동 지원을 위해 마련한 실버세대 텃밭 프로그램 개강식을 지난 1일 빛가람동 우미리아파트 단지 내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강식에 이어 첫 수업에는 노인 회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우울·생활만족도 사전설문조사와 텃밭 만들기, 가을배추 심기가 진행됐다.

실버세대 텃밭프로그램은 '텃밭에서 예술이 되기까지'를 주제로 오는 12월 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총 20회 과정으로 운영된다.

시는 원예전문가 및 자재강사 3명의 지도를 통해 가을채소 텃밭 조성하고 허브 화단 만들기, 허브 화장품 제작, 관엽 식

물 기르기, 꽃차용 식물 심기, 구근 식물 가꾸기, 텃밭가공식품 만들기, 야생화 액자 제작 체험, 텃밭사진 콘테스트, 가든파티 등 다양한 텃밭원에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실버세대의 활기 넘치는 여가 생활 조성과 아파트 이웃과 함께 하는 마을공동체 문화를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나주시는 실버세대 텃밭정원 프로그램 이외에도 아파트 상차텃밭과 학교 텃밭 프로그램, 직장인 원예교실, 빛가람 공원텃밭 가꾸기 등 도심 속 녹지 공간 확충 및 지역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다양한 도시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

나주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발벗고 나서

이행계획서 27일까지 접수

농가 대상 개별면담 추진

나주시가 지역 무허가축사의 적법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나주시는 5일 무허가축사의 적법화를 위해 해당 농가 개별 면담을 통한 이행계획서 제출을 독려하는 등 무허가축사 문제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3월 24일 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는 가축분뇨시설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이달 27일까지 접수 받는다.

시는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적법화 간 신청서를 제출한 906개 농가 중 114개 농가는 적법화 절차를 완료하고 307개 농가는 설계사무소를 통해

적법화를 추진 중이다.

특히 시는 축산단체와 T/F팀을 꾸려 간 신청서 제출 농가를 대상으로 건축물 및 배출시설 허가대상, 축산업 허가대상, 위생지도 등 적법화 관련 서류를 검토, 처리하며 어려움을 해소해주고 있다.

아울러 시는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17%로 낮춰 농가의 재정적 부담을 절감하는 등 시와 축협, 건축설계사무소협의회와 협약 체결을 통해 농가 요구 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과 학교정, 문화재 보호 등에 따른 적법화 불가 구역에 위치한 축사를 비롯해 장기 미사육, FTA폐업지원을 받은 축사 197개소를 제외한 288농가에 대해서는 이달 27일까지 이행계획서 제출을 독려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사람은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무덤이 필요 없는 자연장

無덤

봄 햇살처럼 아낌없이 베풀었던 당신은 봉안시설과 무덤보다는 파사로운 햇살이 내리쬐는 이곳이 더 어울립니다.

후손에게 선물을, 이제는 자연장·수목장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례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례문화입니다.

아름수목장 자연장·수목장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48-3(4층)
☎(062)412-2800